九州大学学術情報リポジトリ
Kyushu University Institutional Repository

高麗 客館 泰安 安興亭의 위치에 대한 논의

尹, 龍爀
公州大學校歷史敎育科 : 敎授

https://doi.org/10.15017/2186148

出版情報：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16, pp.31-40, 2016-03-31.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Kyushu University
バージョン：
権利関係：

高麗 客館 泰安 安興亭의 위치에 대한 논의

尹 龍 爀（公州大學校歷史敎育科敎授）

序言
1. 高麗時代의 海路와 客館
2. 安興亭 위치에 대한 여러 논의
3. 태안安興亭의 위치 문제
結言

序言

한국에서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져 1천 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된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관료를 선발하는 과거제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방에서 수취한 조세를 서울에 효율적으로 옮겨오는 물류 시스템으로서 漕運制度가 그것이다. 두 제도 모두 高麗 初에 성립하여 조선조에까지 일관하였다는 점에서 '千年 制度'라 할 만한 것이다.

高麗時代의 해양 교통과 대외교류의 활성화를 생각하면 서해 연안의 교통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관련 연구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비교적 근년의 일이다. 이제서야 海路와 관련한 문헌에 등장하는 지명의 위치 파악을 위한 기초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서해 연안 海路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주제의 하나가 海路에 설치한 客館의 문제이다. 安興亭은 群山島(선유도)의 群山亭, 紫燕島(영흥도)의 경원정, 예성항의 벽란정과 함께 서해 항로에 설치된 客館 시설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安興亭에 대한 자료는 기록에 따라 위치가 전혀 다르게 정리되어 있고, 심지어 같은 기록 안에서도 서로 다른 위치를 제시함으로써 그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조차 혼선이 있다. 기록에 의거한 安興亭의 위치는 전신인 高巒島까지 포함하면 4개소나 된다. 보령현의 高巒島 이후 해미현 동쪽 11리 지점, 해미현 서쪽 10리(혹은 5리) 지점, 그리고 泰安郡의 安興鎭 앞 馬島가 그것이다. 여기에 근년 泰安의 신진도, 혹은 안흥항 부근일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논란됨으로써 安興亭의 위치 문제는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1)]

安興亭의 위치 문제는 高麗 客館 문제 이외에 서해 연안 海路의 윤곽을 파악하는 데도 중요하고 高麗 대외 무역과 교류 문제에 있어서도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 또 근년 활성화되어 있는 泰安半島 일대에서의 수중 발굴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 문제이다.

安興亭의 문제는 문헌 기록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고 특히 현장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安興亭의 문제를 서해 연안의 海路 및 客館에 대한 문제와 연관하면서 제반 논의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에 일정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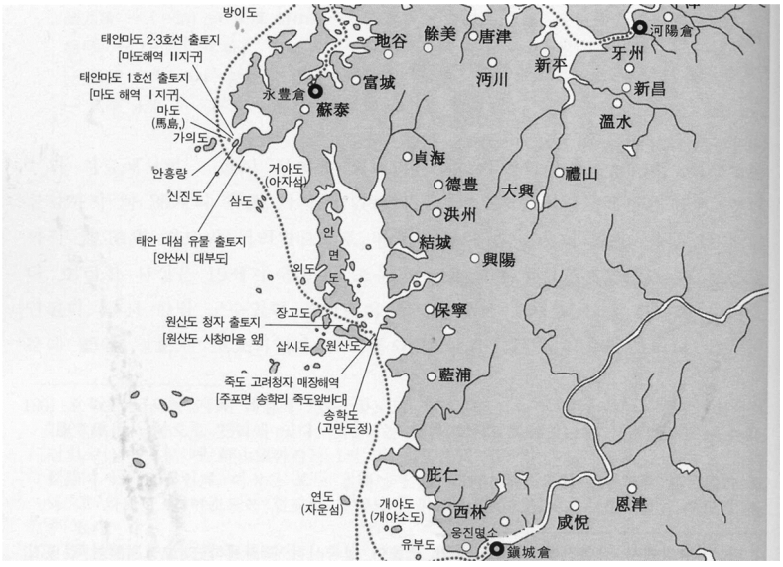
* 본고는 태안문화원 주관 학술회의 〈고려 해상뱃길과 안흥정〉(2015.11.1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구두 발표된 「고려시대의 뱃길과 객관, 그리고 태안 안흥정」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필자 이외에 이호경(「태안 안흥정 학술조사 성과 보고」), 오석민(「태안군의 해양역사자원의 현황과 특징」) 등의 발표가 있었다.

1) 安興亭 문제에 대해서 필자는 기왕에 「高麗시대 서해 연안 海路의 客館과 安興亭」『역사와 경계』 74, 부산경남사학회, 2010(『한국 해양사 연구』 주류성, 2015 수록)에서 그 위치 문제를 논한 바 있다. 본고는 이후 새로 제기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면서, 특히 安興亭의 위치 문제를 중점적으로 취급한 것이다.

1. 高麗 沿岸 海路의 客館과 安興亭

高麗 漕運制의 근간을 이루는 漕倉制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성종대, 혹은 정종대 등 여러 견해가 있다. 전국에 12漕倉을 설치 시점은 '國初'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이 '國初'의 시점에 대해서는 처음 成宗朝(981-997)의 일로 인식되었지만[2], 北村秀人의 논증 이후 년 대략 靖宗 년간(1035-1046)의 일로 인정되어 왔다.[3] 靖宗 년간을 12漕倉의 성립기로 보는 것은 이 때 12漕倉의 漕船 數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년에는 高麗 현종조 혹은 성종조에 시점이 모아지고 있다. 高麗에서 漕運制가 정착되는 것은 지방제도의 정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운용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제도 정비의 추이를 고려한다면 대략 顯宗朝(1010-1031) 말에는 漕倉制가 등장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4]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漕倉制의 성립을 그보다 이른 成宗代(981-997)로 설정하는 의견이다. 그 근거는 漕倉制의 성립시기를 지칭하는 '國初'의 용례가 성종대 이전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 현종 20년 폐지된 전운사는 안찰사 제도의 정착에 따른 제도 정비의 차원의 것으로서 漕運과 큰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점 등이 들어졌다.[5]

고려시대 충남 서해안의 漕運路에 대해서 문경호는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진성창에서 개야도.연도 사이 → 마량진 → 송학도 → 원산도 북쪽 → 안면도 서쪽 해안 → 거아도 → 안흥량 → 관장항 → 방이도 → 난지도.평신진과 풍도 사이를 통과하여 경기 서해안으로 연결된다.[6] 漕運路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해안의 항로에 대해서는 1123년 徐兢의 『高麗圖經』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徐兢은 6월 8일 아침 古群山列島 橫嶼에서 출발하여 남쪽으로 자운섬을 바라보며 진행, 富用倉山(芙蓉山), 오후 4시 경(申刻) 洪州山을 지나 6시(酉刻) 鴉子(軋子)섬을 통과하고, 安興亭이 소재한 馬島에 이르러 정박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6월 9일 아침 8시(巳刻) 다시 馬島를 출발하여 북상하였다.



(지도) 충남 서해 연안의 海路[7]

2) 丸龜金作「高麗の十二漕倉に就いて」『靑丘學叢』21, 22, 1935. 한편 손홍렬이 12漕倉의 성립을 '태조조'로 보았다는 정리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에 대해서 손홍렬 역시 丸龜에 의한 기왕의 논의를 따르고 있다. 다만 漕倉制의 성립 이전 태조조부터 漕運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손홍렬「高麗 漕運考」『史叢』21·22합집, 1977 참조.

3) 北村秀人「高麗初期の漕運についての一考察」『古代東アジア論集』上, 吉川弘文館, 1978, p.359 및 최완기「漕運과 漕倉」『한국사』14, 1993, p.403

4) 한정훈「고려시대 漕運制와 마산 석두창」『한국중세사연구』17, 2004, pp.35-36 참조.

5) 문경호『고려시대 漕運制度 연구』혜안, 2014, pp.51-63 참조.

6) 문경호, 위 책, pp.224-229

7) 문경호, 위 책, p.233

언급된 충남 서해안의 이들 지명에 대해서는 종종의 논의가 있었으나[8], 근년 森平雅彦는 자운섬을 飛鷹島 혹은 烟島, 芙蓉山을 元山島 혹은 高巒島, 洪州山을 安眠島, 東源山을 오서산, 아자섬을 居兒島에 각각 비정하였다.[9]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접근한 문경호는 徐兢이 이용한 서해 연안 海路의 여러 지명을 재검토하면서 부용(창)산을 보령 聖住山, 홍주산을 오서산에 비정함으로써, 森平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馬島 직전의 아자섬에 대해서만은 서산시 남면 소재 居兒島로 보는 의견이 일치한다.[10]

개경에 이르는 沿岸 海路에는 群山亭(군산 선유도), 安興亭, 慶源亭(인천 영종도), 그리고 개경의 관문인 벽란도에 벽란정 등의 客館이 있다. 客館의 설치 목적은 외국(중국) 사신들의 '迎送'의 편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장거리 항해에서 요구되는 여러 물자의 공급, 휴식, 그리고 출입국에 따른 여러 의식과 절차의 거행 등에 이용되었던 것이다. 이들 客館이 남해 연안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생각하면, 客館은 국내용이라기보다는 국제적 교류와 교섭을 위한 시설이었다.

安興亭이 창건된 것은 문종 31년(1077)의 일이다. 泰安半島에 安興亭이 창건되기 이전에는 高巒島(보령)에 亭이 운영되고 있었다. 즉 高巒島의 客館은 1077년 이후 安興亭으로 그 기능이 옮겨진 것이다. 다음이 그 기록이다.

> (高麗 文宗 31년, 1077)羅州道祭告使 大府少卿 李唐鑑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들을 영송함에 있어 高巒島의 亭은 수로가 점점 떨어져 배가 정박하기 불편합니다. 청컨대 홍주 관하 정해현 땅에 정을 창건하여 迎送의 장소로 삼도록 하소서"하니 制書를 내려 그 말에 따랐으며 정의 이름은 '安興'이라 하였다. (『高麗史』9, 문종 31년 8월 신묘)

安興亭의 전신은 高巒島에 있었는데, 高巒島가 불편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客館 시설을 貞海縣 관내에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위의 『高麗史』에서는 불편의 내용을 高巒島가 "항로에서 점점 떨어져 선박의 정박이 불편하다"(稍隔水路 船泊不便)는 점을 들었다. 원래의 항로는 高巒島에 근접하였으나, 토사와 갯벌이 충적되어 항로가 서쪽으로 점점 이동됨으로써 高巒島와 거리가 있게 되었다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高巒島亭의 위치는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의 松島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필자는 가지고 있지만[11], 김성호는 보령시 천북면의 두만동을 지명한 바 있고[12], 森平는 松島 대안의 육지부인 高亭里를 상정하고 있어서[13] 약간의 견해차가 보인다. 천북면의 두만동은 연안 海路에서 벗어난 지점이라 적합하지 않고, '고만리'라는 지명이 남겨진 송도 대안의 육지부 해변을 지목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森平의 견해는 송도가 "물이 빠지면 '고만'과 이어진다"[14] 고 한 기록에 근거하여, 松島가 高巒島와 이어진다 하였으므로 松島와 高巒島는 같은 곳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정리에 '고만'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高巒島로 비정하였다.

그런데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송도와 별도로 高巒島에 대하여 "高巒島는 (보령)현의 서쪽 海中 22리 지점에 있다"고 적고 있다.[15] 비슷한 위치이지만 특별히 '해중'이라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고정리에 소재한 현재의 고만리 마을은 해변지역이어서 섬이 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송도는 현재는 인공적으로 연륙되어 있지만 자연적으로 육지에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客館이 설치된 곳은 '高巒島'라 하였기 때문에 高巒島亭의 위치는 당연

---

8) 祁慶富「10-11세기 한중 해상교통로」『한중문화 교류와 남방海路』(조영록 편) 국학자료원, 1997; 조동원 등 번역『高麗圖經』(번역), 황소자리, 2005

9) 森平雅彦「忠淸道沿海における航路」『中近世の朝鮮半島と海域交流』汲古書院, 2013, pp.160-178 참고. 문경호는 자운섬을 연도, 아자섬을 거아도라 하여 이에 유사한 의견을 암시한 바 있다. 문경호『高麗시대 漕運제도 연구』혜안, 2014, pp.225-227.

10) 문경호「1123년 徐兢의 高麗 항로에 대한 검토」(미발표 원고)

11) 이종영「安興량 조거고」『조선전기 사회경제사 연구』혜안, 2003, p.164; 윤용혁「高麗시대 서해 연안海路의 客館과 安興亭」『한국 해양사 연구』주류성, 2015, pp.152-154

12) 김성호『중국진출 백제인의 해상활동 천 오백년』맑은 소리, 1996, pp.408-409

13) 森平雅彦「高麗における宋使船の寄港地'馬島'の位置」『中近世の朝鮮半島と海域交流』, p.57

14) "松島: 在縣西二十二里 周十二里 潮退卽 與高巒連" (『신증동국여지승람』20, 보령현 산천)

15) "高巒島: 在縣西海中二十二里 古兵戍處 有民居" (『신증동국여지승람』20, 보령현 산천)

히 섬의 공간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김정호의『大東輿地圖』에는 '송도'와 '高巒島'가 별도로 섬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현재의 송도는 하송도와 상송도, 2개의 섬이 이어진 섬이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종합하면 2개의 섬이 이어진 현재의 송도는 결국, 松島와 高巒島가 이어진 섬이다. 송도가 물이 빠지면 高巒島에 이어진다는 앞의 기록은 바로 이 점을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高巒島(松島)는 안면도 바로 아래쪽, 육지에서는 서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위치이다. 高巒島를 지나면 바로 원산도와 삽시도, 안면도 서쪽을 지나 泰安半島 安興梁으로 진입하게 된다.

高巒島亭의 위치 문제도 그렇지만, 泰安半島에 옮겨진 安興亭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 소소한 의견까지 계산에 넣으면 여섯 가지 정도인데[16], 이를 다시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서산시의 海美, 泰安郡의 馬島, 그리고 인근 新津島 등이 그것이다.

安興亭의 위치 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된 배경은 우선 문헌 기록의 상충이 첫 번째 이유이다. 거기에 安興亭의 공간으로 비정할 만한 장소가 불분명하다는 현지의 정황도 한 가지 이유가 된다. 문헌 검토만이 아니고, 현장에 대한 조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安興亭의 위치에 대한 여러 논의

1) 瑞山 海美의 安興亭

서산의 安興亭은 앞에 인용한『高麗史』기록에 '홍주 관하 정해현의 땅'이라 한 것에 근거한다. 조선조에 편찬된 지리지에서는 그 위치를 "(해미현의) 동쪽 11리", 또는 '동쪽 5리'[17] 지점이라 하였고, 18세기『여지도서』혹은『호서읍지』(1895)의 해미지도에는 해미읍성의 북서쪽에 '安興亭'이 표시 되어 있다. 현재 해미면 산수리 한서대 부근에 해당하는데, 해발 200m 신선봉 능선의 거의 정상부에 건물터가 지금도 남아 있다.[18] 지표조사에 의하면 현지에는 2단의 축대, 500평 정도의 평탄대지에 초석과 와편 등이 산포되어 있다.[19] 高麗時代 기와류와 청자편, 토기편 이외에 조선시대 백자편이나 조선 말기의 와류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安興亭은 여러 용도로 계속 건물이 유지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安興亭의 기능은 아마 高麗 후기 이후 상실되고 사원으로 그 기능이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해미의 이 安興亭은 입지상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해안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산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그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개경에 이르는 선박이 해미의 安興亭에 정박할 경우 안면도에 가로 막혀 다시 남으로 내려가 안면도 남단을 우회하여 북상해야 한다는 점이다. 안면도는 17세기 인조조에 이르러 인공적인 방법으로 수로를 개착함으로써 섬이 된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미에 설치된 安興亭의 기능은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해미 安興亭은 15세기『新增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하여 조선조 地誌類의 기록과 지도에 의하여 되풀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安興亭'이라는 지명까지 남아 있어서 '해미 안흥정'의 존재를 간단히 묵살하기도 어렵다.[20]

한편 祁慶富는 안흥정이 소재한 馬島를 안면도에 비정한 바 있다.[21] 그러나 馬島가 안면도여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森平는 馬島 安興亭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海美의 安興亭' 설의 문제를 安興亭 설치 이유와의 모순, 航行上의 난점, 지리적 환경의 불일치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海美의 安興亭'의 존재를 부정하였다.[22]

---

16) 해미, 馬島, 新津島 이외에 해미의 양릉포, 泰安 안면도, 泰安 安興 등이 그것이다.

17) 『新增東國輿地勝覽』20, 해미현 고적조;『輿地圖書』해미현 고적조

18) 한글학회『한국지명총람』4, 1974, p.86 산수리조에 安興亭에 대한 설명이 있고, 5천분의 1지도에도 '安興亭'이라는 지명이 현재 한서대 캠퍼스 부근에 표시되어 있다.

19) 충남발전연구원『문화유적분포지도(서산시)』1998, p.256

20) 『新增東國輿地勝覽』(해미현 역원)에 해미의 驛院으로서 '神堂院'이라는 이름의 院이 "해미현의 동쪽 6리 지점"에 등장한다. '신당원'이라는 院名은 인근에 유명한 신당이 존재하였음을 말한다. 安興亭의 위치와 멀지 않고, 가야산의 기슭이기도 하여, 이 신당의 존재가 安興亭과도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21) 祁慶富「10-11세기 한중 해상교통로」『한중문화 교류와 南方海路』(조영록 편) 국학자료원, 1997, pp.190-191. 조동원 등 번역『高麗圖經』(황소자리, 2005, pp.402-403)에서도 이를 따랐다.

22) 森平雅彦「高麗における宋使船の寄港地'馬島'の位置」『中近世の朝鮮半島と海域交流』, 汲古書院, 2013, p.57

그러나 필자는 해미 안흥정의 경우 문헌적 근거가 분명한 만큼, 이를 간단히 부정하기 보다는 사실적 근거를 해명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안흥정이 처음에는 실제 해미에 설치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하였다.[23]

2) 泰安 馬島의 安興亭

서해 연안 海路上의 客館 安興亭에 대한 기록은 1123년 高麗에 사행한 宋 사신 徐兢의『高麗圖經』에 등장한다. 徐兢이 기록한 安興亭은 해미의 것과는 별도의 것이었다. 徐兢은 馬島에 진입하기 전 홍주산과 鴉子섬(軋子섬)을 거쳤다. 시간은 홍주산이 '申刻'(오후 4시), 아자섬이 酉刻(오후 6시)이며, 이후 '一瞬之間'에 馬島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鴉子섬은 안면도와 馬島 사이의 居兒島(泰安郡 남면)로 추정되는 곳이다.[24] 귀로의 송 사신단은 역시 安興亭이 있는 馬島에 정박하였고(7월 22일), 다음날 馬島에서 아자섬을 지나 남으로 내려갔다.[25]

徐兢에 의하면 安興亭은 '馬島'라는 섬에 위치해 있고.[26] '馬島'라는 이름은 "高麗 官馬를 평상시 이곳에 무리지어 방목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27] 한편 馬島의 지리적 형세에 대해서는 "主峰은 크고 깊은데(渾厚), 왼쪽팔로 둥그렇게 감싸 안은 형국이다. 앞으로는 바위 하나가 바다로 잠겨들어 있다.", 또 "샘물은 달고 초목은 무성하다"고 하였다. 이것만으로는 馬島라는 섬을 짐작하기 쉽지 않은데, 다시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 앞으로는 바위 하나가 바다로 잠겨들어 있어, 격렬한 파도는 회오리치고 들이치는 여울은 세찬 것이 매우 기괴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부근을 지나가는 배들이 감히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암초에 부딪칠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곳에) 安興亭이라는 客館이 있다.

徐兢이 馬島에 이른 것은 1123년 6월 8일 아침 일찍 群山島 남쪽 부근의 橫嶼에서 출발하여 홍주 경내의 富用倉山(芙蓉山), 오후 4시 경(申刻) 홍주산을 지나 6시(酉刻) 鴉子(軋子)섬을 통과한 다음 바람을 타고 날 듯이 馬島에 이르러 정박하게 되었다고 한다. 馬島에 도착한 것은 아마 저녁 7시 경이며, 徐兢 일행은 群山島에서 같이 군졸이 도열한 가운데 환영연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6월 9일 아침 8시(巳刻) 馬島를 출발하여 북상하였다.

현재 지도상에서의 馬島라는 섬은 태안군 근흥면 安興 앞바다에 위치하고, 지금은 安興港에서 新津島와 馬島가 모두 연륙되어 있어 차량을 이용한 출입이 가능하다. '馬島'라는 섬 이름은 조선조의 고지도에도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의 지명임을 알 수 있다. 그 위치는 해난 사고가 잦았던 이른바 安興梁 관장항에 이르는 길목이고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1천 년 간 漕運船이 통과하였던 泰安半島의 서단에 해당한다.

馬島에 安興亭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면 그 정확한 지점이 문제이다. 馬島에는 新津島를 바라보는 쪽에 '마섬'이라는 섬의 중심 마을이 있는데, 지표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 마섬 마을에 '유물산포지'가 보고되고 있다. 지형은 "야산의 남향사면 하단, 완만한 경사지대와 평탄지역이 접하는 곳", 유적 범위는 약 100평이며 기와가 많이 출토된 곳이라는 주민의 전언을 기록하고 있다.[28] 시대는 불분명 하지만 건물터임이 분명하여 安興亭의 일차적 후보지가 된다. 한동안 밭으로 경작한

23) 윤용혁「高麗시대 서해 연안 海路의 客館과 安興亭」『한국 해양사 연구』주류성, 2015, pp.164-156
24) 森平雅彦「忠淸道沿海における航路」『中近世の朝鮮半島と海域交流』汲古書院, 2013, pp.175-178; 문경호「고려시대 漕運船과 漕運路」『고려시대 漕運制度 연구』2014, p.227
25) 신경준의『道路攷』(海路)에서는 泰安半島 일대의 海路에 대하여 원산도-항개초외도-안면도-경도-죽도-馬島-安興梁 등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참고가 된다.
26) 혹자는 서긍의 자료에 객관(안흥정)이 '마도에 있다'고 명기되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마도'가 생략되고 단지 '有客館'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기록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안흥정이 마도에 소재한 것임은 분명하다.
27) 『高麗圖經』37, 海道 4, 馬島
28) 공주대 박물관『문화유적분포지도 (泰安郡)』2000, p.229, 泰安 馬島 유물산포지 참고.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192전, 193답에 해당한다.

것 같지만 버려진지 오래여서 잡초의 퇴적으로 상세한 상황 파악은 어렵다.

3) 泰安 新津島

馬島와 근접한 泰安 新津島에 安興亭이 있었다는 주장은 근년 향토사학자 김기석이 구체적 의견을 제기한 것이고, 오석민, 이호경도 현지 답사를 토대로 安興亭의 新津島 가능성을 일차로 꼽고 있다. 서해 연안 海路와 馬島 위치에 대한 정밀한 고증을 추구해온 森平雅彦도 馬島보다는 新津島에 기울고 있다. 이점에서 新津島 설은 최근 가장 강력하게 부각되고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新津島를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김기석은 新津島의 북단 凌虛臺 부근의 '대청마루'라고 하는 곳을 지목하고 있다.[29] 徐兢이 "앞으로는 바위 하나가 바다로 잠겨들어 있어, 격렬한 파도는 회오리치고 들이치는 여울은 세찬 것이 매우 기괴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한 '바다로 잠겨들어 있는' '바위 하나'를 凌虛臺로 추정한다.[30] 능허대 굽이 돈 '앞말 앞바다'가 송 선박의 정박처라 추정 하였다. 그 중요한 근거는 '대평마루'에서 평평하게 다듬어진 초석과 와편이 널려 있었다는 주민 주민의 증언이다. "송나라 사신이 왕래할 때 사용한 건물이 있었던 곳"이라는 전언이다.[31]

이에 대해 오석민, 이호경은 新津島의 다른 지점을 지목하고 있다. 堠望峰을 배경으로 한 지점으로 馬島와 연결되는 新津島의 서북쪽 안흥초등학교 신진도분교인데, 앞의 지점에서 멀지 않은 위치이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큰 대지이며 전반적으로 마도 방향으로 열린 'ㄷ'자 형태의 대지이다.[32] 후망봉은 "高麗 때 송나라에 사신 갈 때는 먼저 이곳에서 산제를 올리고 일기가 청명하기를 기다려 떠났다"는 구전이 있는 곳이다.[33] 2015년 현지에서 오석민 등이 수습한 명문 기와는 '年思□'로 판독 되었다.[34] 安興亭과 직결 시킬만한 명문은 아니지만, 바닷가 외진 섬에서 청자편과 함께 출토한 명문 기와는 격식 있는 건조물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발굴조사의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일단 해양 문화의 의미 있는 유적으로 생각된다. 이호경은 주변에 3개의 우물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안흥정으로서 가장 유력한 지점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35]

4) 安興 (安興鎭城)

한편 森平雅彦는 안흥정 위치에 대해 新津島의 구체적 지점을 지목하고 있지는 않으나 '馬島'보다는 新津島를 포함한 安興의 어느 지점일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우선 앞에서 인용한 徐兢의 馬島에 대한 묘사가 智靈山을 중심으로 한 '安興半島'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 즉 泰安 安興半島의 主峰은 전술한 지령산인데, 높이는 200m 정도, 폭과 두께가 있어서 중량감 있는 산의 모습이다. 크고 깊다(渾厚)는 馬島의 주봉은 이에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徐兢이 산 높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도 높이 자체는 반드시 현저하지 않은 실상을 충실히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그 내측은 논이나 간척지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깊이 灣入한 干出沙堆였다. 馬島의 주봉으로부터 왼팔로 둥그렇게 감싸안은 형국이라는 것은 아마 이에 해당하는 것일 것이다.[36]

---

29)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136-1에 해당한다.
30) 馬島를 安興半島로 추정하는 森平는 김기석의 凌虛臺를 官首角(官長角)에 비정하고 있다. 森平雅彦 「高麗における宋使船の寄港地'馬島'の位置」 p.51
31) 김기석 「새로 발견한 泰安의 安興亭터」(원고본)
32) 이호경 「안흥정 시굴조사 보고」『고려 해상 뱃길과 안흥정』(세미나 발표 자료집), 태안문화원, 2015, pp.9-10 참조. 대지는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73전 일대 10필지에 해당한다.
33) 한글학회『한국지명총람』4, 1974, p.17
34) 오석민 「安興亭 위치 비정을 위한 학술지표조사 및 학술대회 제안서」(원고본)
35) 이호경, 앞의 발표문, p.10
36) 森平雅彦 「高麗における宋使船の寄港地'馬島'の位置」 p.50

徐兢에 의하여 묘사된 '馬島'의 지형적 조건과 함께 현재의 馬島는 8隻이나 되는 대형 선박이 정박하기 어렵다는 것이 馬島를 安興에 비정하는 이유이다. '馬島'에 비하여 安興은 新津島를 앞에 끼고 있어 풍파를 피할 수 있고 수심도 확보되어 있어 정박지로서 가장 적합한 위치라는 것이다.[37] 그리하여 당시 송 사신 徐兢의 정박처를 馬島가 아닌 安興港(舊港)에, 그리고 客館은 "安興항 연안의 安興集落이나 그 건너편 新津島 東岸의 灣岸"을 지목하고 있다.[38] 安興港이 宋 선박의 정박처이고, 安興亭은 新津島를 포함한 安興港 부근에 소재한 보는 것이다. 安興亭이 新津島에 있었을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의 新津島 설과 상통하는 견해이기도 하다.

아예 安興, 安興鎭城을 安興亭의 위치로 보는 의견도 있다. '安興山城 관상대 부근'이 安興亭의 자리라는 것이다. 당시의 安興港은 지금은 '육지화된 安興山城의 후면'이라고도 하였다.[39] 여기에서 말하는 '安興山城'은 安興鎭城을 지칭한다.

3. 태안安興亭의 위치 문제

安興亭의 위치 문제에 대해서 최근 특히 논란되고 있는 것은 泰安의 馬島와 新津島이다. 馬島와 新津島는 安興半島에 이어지는 부속도서로서 인접한 위치인데다 安興梁의 수로에 해당하는 곳이어서 크게 말하면 지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安興亭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른 장소가 된다,

安興亭의 위치에 대한 문헌 자료는 여러 소재가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자료는 역시 1123년 송 사신 徐兢의『高麗圖經』이다. 그러나 徐兢의 관련 기록만으로는 馬島와 新津島 여부를 가리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이 기록에 섬 이름이 '馬島'로 기록되어 있는 점이다. '馬島'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굳이 부정하여 '新津島'라는 다른 섬이 '馬島'라고 하는 것은 논리상으로는 무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기본 자료인 徐兢의 기록에 安興亭의 소재가 '馬島'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馬島 安興亭' 설이 일차적 우선권을 갖는다. 森平의 경우 '馬島'에 대한 의문은 대선단의 정박처로서의 적합성 여부에서 비롯된다. 이와 관련하여 徐兢의『高麗圖經』관련 기록을 다시 읽게 된다.

> 밤이 되자 큰 횃불을 태워 밤하늘을 휘황하게 밝혔는데, 마침 바람이 아주 거세져서 배가 흔들리자 거의 앉아 있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사신이 부축을 받아 작은 배로 해안에 올라(登岸) 群山亭의 예에 따라 서로 인사하였다. 하지만 술은 받아 마시지 않고 밤이 깊어 사신의 배로 돌아왔다.

馬島 정박시의 기록이다. 그날 대선단은 馬島 해변에 직접 배를 접안한 것이 아니었다.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海中에 있었는데, 직접 정박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때문인 듯하다. 송 사신은 선단에서 작은 배를 이용하여 섬에 올랐다가, 밤이 깊어지자 馬島에서 숙박하지 않고 다시 선단으로 귀환하였던 것이다. 아마도 당시 송 사신의 선단은 馬島와 新津島 사이의 해중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徐兢이 언급한 '馬島'는 오늘의 '馬島'일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馬島'라는 섬 이름은 18세기 英祖年間 제작의 지리서,『여지도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40] '新津島'라는 섬 이름은 오래된 정박처이기보다는 무언가 후대에 개발된 정박지라는 느낌을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하면, 1123년 송 사신의 선단이 安興港에 입항하였을 것이라든가, 安興亭이 安興港 부근의 마을

37) 위 논문, p.49
38) 森平雅彦「高麗における宋使船の寄港地'馬島'の位置」『中近世の朝鮮半島と海域交流』汲古書院, 2013, pp.48-49 및 pp.53-54
39) 김성호『중국진출 백제인의 해상활동 천 오백년』맑은 소리, 1996, pp.411-423
40) 이 지도에 新津島는 '新鎭島'라 하여 기재상의 차이가 있다.

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新津島의 경우도 그 자체만으로는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서긍이 '馬島'라고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馬島는 馬島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다만 '馬島 安興亭 설'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고고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문경호는 서해 연안의 海路에 설치된 客館은 사신들이 머물렀던 개경의 客館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李裕元의『林下筆記』혹은『增補文獻備考』등을 근거로 '客館' 대신 '亭館'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41] 한편 14세기 공주에 재건된 永春亭에 대한 자료에는 영춘정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행사 가운데 다음과 같이 손님을 맞는 행사가 소개되어 있다.

> 큰 州나 府에서는 또 迎客亭이란 것이 있다. 按部라든가 察訪 같은 크고 작은 사절이 오고 갈 때면 주나 부에서는 반드시 모든 군관과 병졸과 모든 우두머리 아전들에게 명하여 깃발을 들고 의관을 갖추고 먼저 나가서 먼 경계선에서 영접하고, 부관과 군수는 관료들을 인솔하고 가죽신과 복장을 갖추고 맞이하여 뵈옵는 형식을 갖추고 서로 차례대로 근교에서 기다린다. 외모를 단정히 하고 예를 행함에 있어 엄숙하며, 공경하고 진실하며 삼가고, 주인과 손님의 거동을 화목하게하며 높고 낮은 지위를 차려서 맞이하며 또한 전송하게 될 때에 또한 이 정자가 꼭 필요한 것이다.(『東文選』65, 公州東亭記)

이같은 손님 맞이의 기능이 바로 徐兢이 群山亭 혹은 安興亭과 같은 客館에서 경험한 행사와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위의 '公州東亭記'에는 당시 迎春亭이 건축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 지면의 넓이를 참작하여 지대가 동편으로 치우쳐 있으므로, 거기에 賓樓를 세우고 남향으로 몸체를 높이 지었다. 서쪽행랑과 남쪽행랑이 모두 14칸이요, 옷갈아 입는 장소와 음식 차리는 장소며, 겨울에 사용할 온돌방과 여름에 사용할 시원한 대청까지 모두 마련되었다. 그리고 나서 곧 축대를 쌓고 매질을 하고 단청을 올렸다. 그 규모는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으며 그 설비는 누추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았다. 평평한 마당과 층층대의 계단과 행랑과 步道들의 위에서는 예절을 행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는 사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에 의하면 '賓樓'라 칭해진 남향의 누정 건물 이외에 서쪽과 남쪽에 14칸의 행랑, 음식을 차리는 주방, 온돌방과 대청 등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群山亭 혹은 安興亭의 건축 구성에 대해서도 암시를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亭'으로 칭해진 客館은 의례용의 누정 건물 이외에 음식과 숙박, 계절이 高麗된 다양한 시설이 함께 설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群山亭의 경우도 "亭은 바닷가에 있고 뒤로 두 봉우리에 의지했는데, 그 두 봉우리는 나란히 우뚝 절벽을 이루어 수백 길이나 되었다. 관문 밖에는 관아(공해) 10여 칸이 있다"[42] 고 하여 역시 부속 시설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맺는 말

고려시대 서해 해운로상의 客館은 海路를 통한 대외 교류가 발달하였던 高麗時代의 관영 시설로서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하여 12세기 초 宋 徐兢의『高麗圖經』의 자료를 주로 사용하여 당시 서해상 客館이 黑山島, 群山島(群山亭), 泰安의 馬島(安興亭), 紫燕島(영종도, 경원정), 예성항(벽란정) 등에 설치되어 있음이 밝혀져 있다. 이들은 대략, 1-2일 거리의 간격으로서 사신들의 접대 및 연안 海路 통행의 편의와 함께 각종 의례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활용되었다.

서해 연안의 客館 가운데 본고에서 중점 검토한 것은 安興亭이다. 그런데 安興亭에 대해서는 瑞山 海美와 泰安의 馬

41) 문경호「1123년 徐兢의 高麗 항로와 경원정」『한국중세사연구』28, 2010, p.487 참조.
42) 徐兢『高麗圖經』36, 海道 3, 群山亭

島라는 두 지역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안흥항 혹은 안흥진성을 지목하는 의견이 있고, 최근에는 馬島와 안흥항 사이 新津島를 安興亭 소재지로 보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安興亭의 위치와 관련, 특히 徐兢이『高麗圖經』에서 언급한 정박처 安興亭은 泰安郡 近興面 소재의 馬島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다. 다만 馬島의 어느 지점이었는가 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新津島의 경우 高麗期의 명문와와 청자의 출토 지점이 있어서 주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安興亭으로 지목하기에는 아직 연결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지역에 대한 보다 치밀하고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43]

安興亭의 전신인 보령의 高巒島亭 위치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려 있는 상태인데, 필자는 현재의 松島가 高巒島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거듭 확인하였다. 고고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은 역시 문제로 남는다. 馬島 해역에서는 泰安船 조사 이후 馬島 1, 2, 3, 4호선 등 지속적인 수중조사가 진행됨으로써 한국 중세 역사의 지경을 넓혀왔다. 그러나 수중조사와 함께 인근 도서 연안 지역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태안, 서산 지역의 운하 관련 유적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지위 부여 문제는 매우 시급한 과제로 생각된다.

43) 안흥정, 군산정 등의 객관에 대하여 이를 '亭館'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는 의견을 문경호는 제기하고 있다. 李裕元의『林下筆記』,『증보문헌비고』의 기록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필자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지만, 서긍의 기록 등 당시 자료에 '객관'으로 적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객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무리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A Study of the Location of Koryeo Official Residence, Anheungjeong of Taean

Yun-Yong Hyeok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Official residences located along with the West Sea of the Korean Peninsula have some important meaning as a government-run facility in the era of Koryeo. The book of *Koryeo-Do-Gyeong* (『高麗圖經』) published by Seo Geung (徐兢) of the Chinese Song Dynasty in the early 12th century reveals that Koryeo official residences were established in Heuksan-do island, Gunsan-do island (Gunsanjeong), Ma-do island (Anheungjeong), Jayeon-do island (Kyeongwonjeong) of Taean region, Yeoseong harbor (Byeokranjeong) and other places. Located at a distance of one or two day trip each other, they were usually used to entertain foreign envoys and provide convenience for coast passage and functioned as an institute to execute various rites.

This thesis is mainly focused on Anheungjeong among such official residences on the coast of the West Sea. For Anheungjeong, two regions of Haemi of Seosan and Ma-do island of Taean indicate the same place in historical records. Some argue that Anheungjeong was Anheung harbor or Anheungjin castle, while more recently others maintain that Anheungjeong could have been at Shinjin-do island, located at between Ma-do island and Anheung harbor. Concerning the location of Anheungjeong, the thesis especially re-confirmed as Seo Geung mentioned in *Koryeo-Do-Gyeong* that the berth place of Anheungjeong was Ma-do island belonged to Geunheung-myeon, Taean-gun of today. The study, however, failed to suggest a concrete place for Anheungjeong in the region of Ma-do island.

Even the fact that Koryeo roof tiles with inscription and celadon were excavated in Shinjin-do island, that discovery does not guarantee a direct link between Shinjin-do island and Anheungjeong. Therefore, more detailed and comprehensive study would be needed before discussion of it.

Whereabout of Gomandojeong of Boryeong, the former Anheungjeong has not been clearly identified and the researcher of this paper again made sure that Song-do island was Goman-do island but nevertheless, it is sorry for not presenting archaeological evidence for it. Since the investigation of Taean vessel, a series of research activities including Ma-do island No. 1, 2, 3 and 4 vessels have continued in the seas of Ma-do island, which has helped to more understand the middle age history of Korea. But it is thought that a general survey on the near islands and coast areas along with the current water investigation will be highly required.